



◀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

배평암 한국어항협회장은 지난 2월 12일(목)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2004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분야 활동방향」에 대한 수산·어업인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평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특위의 수산분야 활동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어촌·어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역 통합개발에 필요한 법령 정비를 위해 관련 법령간의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 한국어항협회 제38차 이사회 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24일(화) 오전 11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3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어촌 · 어항 통합 개발 추진

해수부 - 청와대 업무 보고서 밝혀, 노대통령 - 어촌 어항 개발 성공 당부

앞으로는 어촌과 어항이 통합 개발된다.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지난 2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어항개발과 어촌 개발사업을 통합, 어업인의 생활 터전으로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항 개발과 어촌 개발을 통합해 미래형 다기능 종합어항, 관광단지 개념으로 새롭게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어항을 방파제, 물양장 등의 단순 어업지원 기능에서 유통, 가공, 관광기능까지 통합한 새로운 어항 기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7년까지 어촌체험마을 60개소 개발,

아름다운 어촌 100곳의 거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편 갯벌, 항만 등에 대한 편의시설, 해양관광 기반시설, 항만친수공간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산항과 제주항에 8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이를 전국 어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연안해상 수송 수요를 충족키 위한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어촌·어항 통합 개발 사업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어촌·어항 개발 사업은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 각 지역의 지역 특화발

전 특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확실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해 달라”고 주문했다.